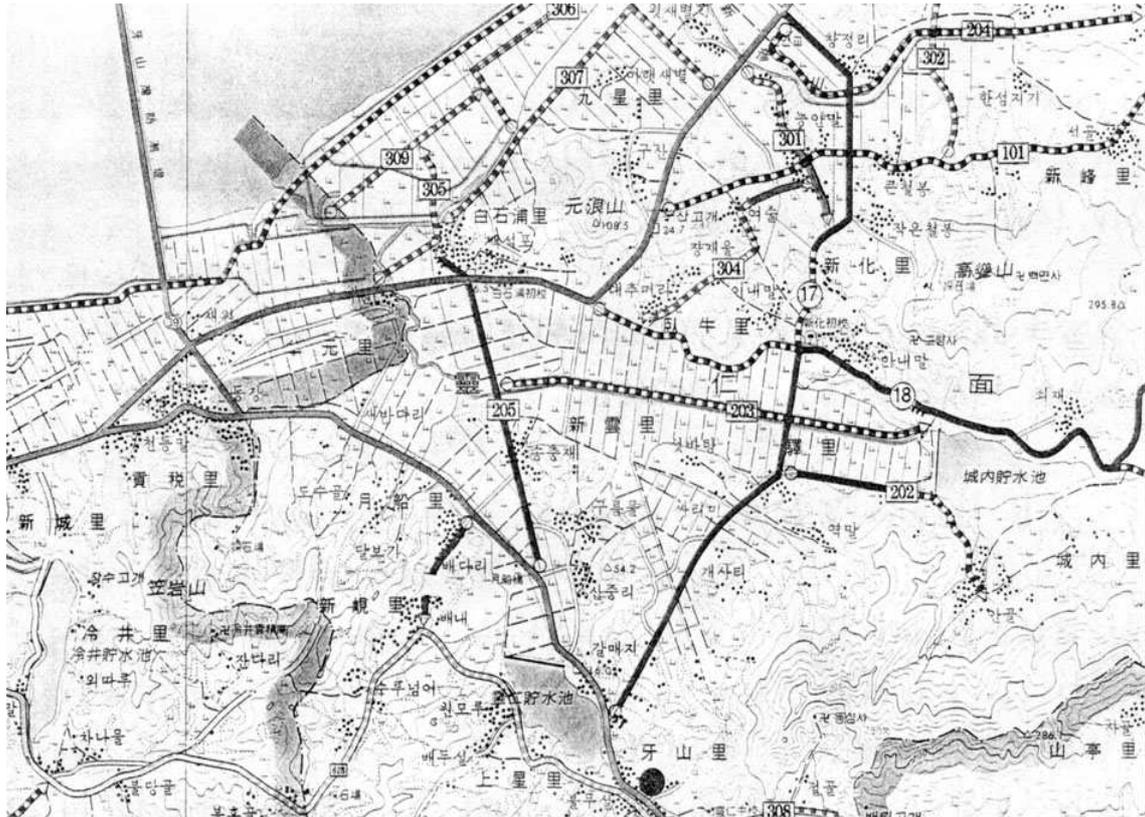


백석포리·白石浦里

백석포리는 영인면의 한 마을로 일부는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총 인구수는 643명이고 가구수는 191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일부는 상업과 써비스업에도 종사한다. 백석포리는 본래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으로서 백석포가에 있으므로 백석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석포리라 하였으며 정조때 수원 백성들이 화산성을 쌓는데 그 노역을 피하여 이곳에 모여서 큰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백석포리 위치도>



⊗ (안말, 셋말) 마을

백석포리는 마을 지명이 마을 입구에 흰 조약돌들이 많다하여 흰돌이라 유래되었으며 백석1리는 안말 백석 2리는 셋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석포 초등학교가 있고 주로 벼농사를 짓는 부농이 많은 두자연마을이 한마을처럼 살고있다.

<조사당시 백석포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 치

백석포리는 면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4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삽교호, 둔포, 평택간 국도(34호)가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위도 36-53-40, 경도126-56-30에 위치하고 있다.

2) 현 황

백석포 1리는 자연부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구수는 남자 195명, 여자188명으로 총 383명이 살고 있고, 호구수는 115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며 일부 상업과 서비스업에도 종사한다. 특산물로는 고추와 동부가 있다.

2구의 총인구수는 331명으로 남자 168명, 여자 163명이며 호구수는 101호에 이른다.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한다.

- 인구분포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흰돌(안말)	383명	195명	188명
흰돌(셋말)	331명	168명	163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상업	기타
흰돌(안말)	100%	80%	15%	5%
흰돌(셋말)	100%	85%	10%	5%

마을의 농경지 분포를 보면 밭보다는 논이 많으며 농기계 현황도 논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경운기, 트랙터등 많이 보유하고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흰돌(안말)	158ha	141ha	17ha
흰돌(셋말)	152ha	137ha	15ha

- 농기계 보유 현황

구분 마을명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흰돌(안말)	46대	13대	1대	7대	6대	32대
흰돌(셋말)	35대	14대	1대	7대	7대	28대

문화시설은 백석 1리, 2리 모두 회관 및 앰프 사물놀이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앰 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흰돌(안말)	1채	1개	1조	
흰돌(셋말)	1채	1개	1조	

연령분포에서는 1리, 2리 모두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80대 이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0이상
흰돌(안말)	15명	46명	29명	48명	51명	98명	71명	23명	2명
흰돌(셋말)	20명	44명	15명	32명	49명	83명	68명	20명	

성씨별분포 현황에서는 1리는 김씨(김해)가 가장 많고 2리는 전주이씨가 16가구이며 김해김씨는 15가구로 비슷하다.

- 성씨별 분포

구분 마을명	김씨	이씨	박씨	강씨	오씨	구씨	곽씨	기타
흰돌(안말)	32%	14%	6%		3%	4%	3%	38%
흰돌(셋말)	27%	27%	5%	7%	3%			31%

학생분포에서는 1리는 46명, 2리는 44명으로 조사되었다.

- 학생 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흰돌(안말)	16명	15명	12명	3명
흰돌(셋말)	15명	13명	12명	4명

- 최고령자

백석포 1리의 최고령자는 83세의 김종환 할아버지이시고,

백석포 2리의 최고령자는 78세의 김춘식 할아버지이시다.

- 호당 평균 소득

백석포1리는 호당 년 평균소득이 1,200만원, 백석포2리는 호당 평균소득이 1,100만원 정도이다.

3) 자연 경관

백석포리는 전엔 배가 드나드는 포구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상업과 어업이 발달하였으나 아산만 방조제 축조로 포구는 없어지고 넓은 농지가 조성되어 현재는 벼농사를 주로하는 부농 부락이 되었다. 안말은 넓은 들판이 갯벌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인해 논으로 바뀌고, 백석산 한쪽의 절벽이 과도에 침식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닷가였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해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많으며 가옥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4) 마을 변천 과정

백석포리는 본래 아산군 이북면의 지역으로서 백석포가에 있으므로 백석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석포리라 하였으며 정조때 수원 백성들이 화산성을 쌓는데 그 신역을 피하여 이곳에 모여서 큰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5) 지 명

- 등 말 : 백석산 기슭 등마루에 있는 마을
- 점 촌 : 월랑산 밑에 있는 마을
- 고 잔 : 새말 앞에 있는 들
- 배 터 : 안말 앞에 있는 마을.배를 타는 나루터가 있다.
- 새 말 : 점촌 아래에 새로 된 마을
- 안 말 : 새말 안쪽에 있는 마을
- 월랑산 : 백석포 말 포구에 크고 흰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이름을 빌어'흰돌' 이라고 불리었으며, 흰돌이 있는 포구라 하여 백석포라 하고, 또 월랑산 기슭에 있는 마을도 백석포라 하게 되었다.
- 동 산(백석산) : 지금의 백석포 회관 뒤에 있는 마을 뒷산, 이산에 산채당(山祭堂)이 있으며, 청일전쟁 때 청국군이 이 일대에 44일간 주둔하고 있었고, 3·1운동 당시 백석포 주민들이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 구레빨 산 : 월랑산 서쪽 갯벌 쪽 농로를 따라가다 보면 구성리 가기전에 있는 조그마한 산. 옛날에는 바위 밑에서 굴을 파던 곳이라 하여 구레빨이라 불렀다 한다.
 - 서낭당 고개 : 구레빨에서 새별리로 가던 산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 구산 고개 : 백석포에서 구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 노루목 들 : 백석포 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들.
 - 용난수 들 : 와우리 입구에서 구산 고개에 이르는들.
 - 정샘 들 : 백석포 초등학교를 지나 와우리 입구에 이르는 들.
 - 고전 들 : 백석포에서 신운리로 가다가 오른쪽에 속해있는 들.
 - 방죽안 들 : 용난수 아래에서 노루목까지의 들.
 - 방죽아래 들 : 방죽아래에 있는 들로서, 시운리로 나가다 보면 왼편에 있는 들.
 - 원논 들 : 백석포 마을앞에 있는 들.
 - 샘골 들 : 월랑산과 동산 사이에 있는 들.
 - 새양골 : 안말 북동쪽에 있는 들. 샘이 있다.
 - 간사지 들(속필) : 구성리에 거주하는 이석곤씨가 미국의 원조 농산물을 이용해 제방을 만들어 개간하여 농사짓다가, 아산호 방조제가 완공됨에 따라 120만 평의 옥토가 된 들이다.
 - 모원다리 : 백석포에서 모원리로 가던다리.

- 부채샘 : 월랑산 동남간에 있는 샘.
- 큰 샘 : 백석포 마을 중간에 있던 샘.
- 반들샘 : 지금의 남상성.
- 새양골 : 안말 북동쪽 있는 들. 샘이 있음.
- 원안(월암제) : 고잔 아래쪽에 있는 들 언의 안쪽이 됨.
- 백석교 : 백석포 남쪽에 있는 다리. 1962년에 놓았음.
- 통 샘 : 나무로 샘둘레를 만들어 붙여졌으며 마을 공동 우물이었다.

6) 입향

정조때 부터이니 그 연대로 말하자면 약 300여년쯤이며 옛날에는 염전이 있었다고 한다. 바닷가 근처였기 때문에 사람이 산 연대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는 김해 김씨와 경주 김씨가 많이 살고 있다. 새말(백석포2리)은 안말과 논둑을 접경으로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성씨로는 전주 이씨와 김해 김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전설

백련암의 약수터

아주 옛날에 백석포(白石浦)의 뒷산 月浪山이라는 곳에 白蓮庵이라는 조그만 庵子가 하나 있었다. 이 암자는 유명했다. 그래서 불공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곳은 경치도 좋았다.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항상 많은 새들이 지저졌다. 어느날 그 암자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스님이 뒤뜰을 거닐다가 큰바위에 뚫려 있는 조그만 구멍 하나를 발견했다. 스님은 깜짝놀라 다가 가서 그 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았다. 며칠이 지나서 스님은 다시 그뜰을 지나게 되었다. 며칠전 무심코 지나쳐 버린 구멍 밑에 하얀 쌀이 한 주먹 정도 떨어져 있었다. 스님은 이상하게 여기고 다시 그 구멍을 들여다 보았다. 그 구멍은 그 전보다 약간 커져 간신히 주먹하나 들어갈수있게 뚫려 있었다. 스님은 주먹을 넣어 보았다. 손에 잡힌 것은 쌀이었다. 스님은 깜짝놀라 열른 손을 빼고 주위를 살펴 보았다. 혹시 누가 보는가 해서 었다. 스님은 구멍에 표가 나지 않게 해놓고는 매일 혼자만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넓어져 나오는 쌀이 每日아침 庵子의 食口數대로 었다. 또한, 佛供드리려고 오는 손님이 많을때는 손님의 數대로 넓어져 나왔다고 한다. 하루는, 愆心 많고 어리석은 한 중이 혼자 생각해보니 그 구멍속 바위에는 數萬石의 쌀이 山積해 있다는 期待와 每日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施主를 얻어오지 않아도 되리라는 게으른 생각에, 그 구멍을 크게 뚫으면 더 많은 쌀이 나와 富者가 되겠다는 愆心에, 다음날 아침 긴 鐵槍으로 구멍을 반까지 찼다. 그러나 쌀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동안 관 구멍은 크게 뚫어졌으나 웬일인지 쌀은 한 톨도 보이지 않고 난데없이 물만 나오지 않는가? 그 뒤, 그 庵子에는 佛供을 드리러 오는 사람도 끊어지고 廢墟가 되어 망하였고 쌀이 나왔다는 구멍에는 맑은 물이 흘러나와 藥水터가 되었다고 한다. 바로 그곳이 '백련암의 약수터'라 한다.

8) 전통놀이 및 집단행사

백석포리는 산제를 지내는데 산제당이 마을 회관 뒷산에 있으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액운을 피하고 복을 빌기위해 공동 산제를 지냈으며, 지금도 매년 음력 12월 30일에는 생기북덕의 운이 닿는 사람이 주당이 되어 제례를 올리고, 가구주의 소지를 올리고 있다. 용신제는 객주집에서 뱃사람들의 일년신수와 만복을 기원해주기 위해 올리던 제례로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용신례를 올렸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작을 계를 하여 마을 주민들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9) 특별히 소개할만한 인물

특별히 소개할 만한 인물은 조사되지 않았다.

10) 종교 단체

대한성공회 영인면 백석포1리 신부 이성대

11) 공장 현황

한성실업 대표 : 유흥섭 백석포854번지 생산품목 : 켄버스제품

삼손 퍼라이트(주) 대표 : 손연호 백석포 산6-17 생산물품 : 비철금속 광물제조

12) 마을의 특성

아산으로 유배되어온 이민구라는 사람이 백석어촌이라는 시를 냈고 귀산실기에 오교대 팔경이란 시에 백석포귀범이란 시가 있듯이 백석포의 풍경은 타 지역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인지 인심도 좋고, 주민들간의 화합도 잘되는 마을이다.

이밖에도 마을 공동작업으로 어린이 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수 있는 놀이터를 설치하였다.